



표·준·화·논·단

표준화의 경쟁력 제고



전자신문 기자 손재권

지난 9월 29일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공동 연구계획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글 어스’를 통해 위성사진 지도검색 서비스를 선보여 검색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구글이 나사를 통해 아예 우주 영역까지 ‘검색’하겠다는 놀라운 시도다.

이와 함께 구글은 이날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가 입주해 있는 실리콘벨리 마운틴뷰 100만㎡ 부지에 사무실과 주택을 포함, 대규모 공동 연구단지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 당일 기사는 취재차 실리콘벨리에 있었다. 구글과 나사의 협력이라는 놀라운 시도와 별도로 현지의 반응은 의외로 차가운 편이었다.

반응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웬 대규모 연구단지?”

실리콘벨리에 빈 사무실이 많은데 대규모 연구단지를 따로 건설할 필요가 있었냐는 물음이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첨단 건물에 최대 4000명을 수용하려면 신축이 불가피했다”고 대답했다.

어쨌든, 빅뉴스를 두고 공실률을 걱정하는 것을 보면 실리콘벨리의 수많은 ‘빈 사무실’은 큰 골칫거리임에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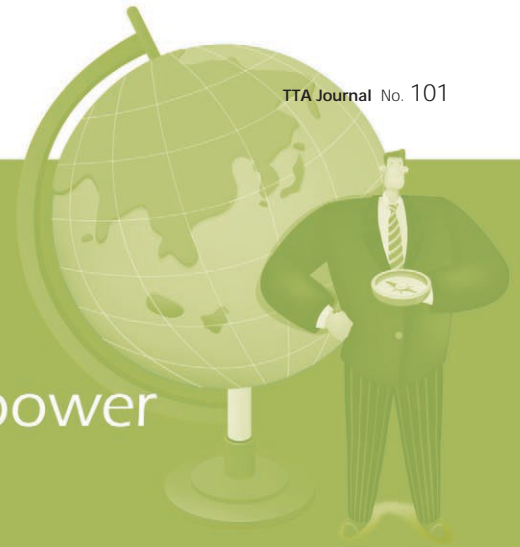
실리콘벨리에서 공실률을 걱정하는 이유는 지난 2000년 이후 15%를 넘어선 실리콘벨리의 공실률은 경기가 회복된다던 2004년 이후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벨리의 공실률과 취업률은 세계 IT 경기를 재는 바로미터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사무실이 짝 차고 취업률이 높으면 사람과 돈이 벨리로 들어온다는 증거이므로 곧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IT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다. IT경기가 회복됐다고 선언했지만 벨리의 경기는 더 좋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은 나빠졌다.

캘리포니아에서 채용 1, 2, 3위를 다투던 IMB, HP, 시스코 등은 뒤로 밀리고 이제 Top10에 하이테크 기업은 없고 헬스케어 회사나 세이프웨이(SafeWay) 같은 리테일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리콘벨리 회사들은 더 이상 엔지니어들을 대규모로 채용하지 않는다. 대신, 인도나

Global Standardization competitive power



중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를 현지에서 고용한다.

아이파크 실리콘벨리 이종훈 소장은 이를 두고 “엔지니어링의 붕괴”라고 표현했다.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제조업은 중국으로, 콜센터는 인도로 갔지만 엔지니어링은 벨리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믿었던 첨단 기업들은 엔지니어링조차 현지에서 아웃소싱(Outsourcing)한다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3년 내에 엔지니어링에 이어 디자인(Design) 및 구상(Planing)까지 중국이나 인도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리콘벨리는 미국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인도의 방갈로르나 중국의 베이징, 텐진을 의미하는 단어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택서스와 올리브나무’로 세계화 현상을 규명한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그의 신작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에서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인터넷의 보편화로 세계는 평평화(Flattening)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은 미국의 B급 인재보다 인도, 중국의 슈퍼A급 인재를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평화된 세상에서는 기술 기업보다 아웃소싱을 잘 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 세계적으로 특허보유 순위 1, 2위를 차지하며 대표적인 기술기업으로 알려진 HP는 CEO를 해임하고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IBM이 IT분야에서 리더십을 잃어버린지도 이미 오래된 얘기가 됐다.

대신 델(Dell)이 컴퓨터 업계를 장악했다. 델은 2000년 이후 세계 시장에서 15~18% 대를 유지하며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델이 전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데는 총판·대리점·판매점 같은 유통 과정을 과감히 없앤 ‘다이렉트’ 전략을 구사하고 전 세계적 규모의 아웃소싱으로 후발 사업자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델을 ‘기술 선도기업’이라고 하지 않는다.

델의 사례는 기술이 앞선다고 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으나 델의 기술력과 특허 출원 수는 HP나 IBM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뒤질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엔 획기적인 기술 개발과 선점 전략이 쓰러지지 않는 회사를 만들었으나 이제 보유했던 기술도 스스로 내 놓는 시대가 왔다. 선과 IBM은 경쟁적으로 특허를 공개, 특허 유지비마저 떨 치려 한다.

이를 두고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한 전문가(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15년 거주)는 “앞으로 원천 기술 및 특허를 갖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쉘컴, 오라클 등 몇 개 기업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더 이상 (인터넷,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새로운 발명급 개발은 없을 것 이고 나올 것은 다 나왔다”라며 “이미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경쟁력의 핵심 조건 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은 여전히 기업 및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다. 그러나 ‘기술 개발 윤리’로 글로벌 경쟁에 서 살아남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은 변화는 ‘국제 표준화 작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술개발과 표준화 는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준화를 선도적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로 정의내릴 때 새로운 기술이 나올 확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표준화 작업에도 적잖은 변 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에는 기술이 개발되고 곧 이은 표준화가 시장을 선도할 것(또는 시장 개척) 이라고 봤 으나 이젠 달라졌다. 최근 표준화 회의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시장성’이라는 앞만 보고 달려온 표준화 작업이 이제 ‘이용자의 수용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는 것이다.

한 표준화 전문가는 “표준화가 기술 이슈의 최고를 선점하는 동안 기술 개발 이후 표준화에 성 공하면 시장은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3G 이동통신에서 표준화 성 공과 시장에서의 실패는 앞으로 표준화 작업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3GPP와 3GPP2조차 서둘러 표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생겼다. 지난 6월 서울 에서 개최된 ‘3GPP2 Evolving to Future Wireless Technology’ 워크숍에서 애초 3GPP2 를 중심으로 ‘3세대(3G) 이후(Beyond 3G)’ 기술발전 방향 및 표준화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향후 기술발전 방향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인해 아직까지 는 결정을 이를 만한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GPP와 3GPP2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어 양 표준화 단체의 통합을 언급하기도 했다.

3GPP2 관계자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분위기가 바뀐 것을 느낀다. 서둘러 표준화에 나서지 않 는다. 표준화 단체 구성원들도 어차피 각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에 속해 있어 시장과 서비스 수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앞서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NGN) 표준화도 같은 움직임이다. 특히 IT839 정책에 포함돼 정부차원에서 육성하려 하는 한국의 광대역통합망(BcN) 역시, 공급자위주의 정책보다는 서비스와 실제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지상파DMB 표준화 과정에서도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기술이 유럽을 넘어 세계의 표준이 된 것은 대단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원천기술은 한국의 것이 아닐 지라도 세계적 흐름에 맞게 재창조 한 것 또한 높게 평가받을 일이다.

그러나 표준화의 의미가 '기술 과시'는 아닐 것이다. 표준화에 성공했으면 모두가 쓰도록 하는 것이 순서다.

지난 9월 유럽(네덜란드)에서 열린 IBC와 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CTIA와이어리스 2005에서 나타났듯이 아직까지 지상파DMB는 유럽의 DVB-H나 미국의 미디어플로가 보다 해외홍보 면에서 강화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상파DMB가 세계 표준화에 성공한 것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므로 표준화에 만족하지 말고 시장 개척을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1990년대 후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인터넷이 등장했다. 글로벌 광 네트워크의 등장,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이 한순간에 등장하고 확산됐다. 융합 결과 세계 경제의 무대는 높낮이가 없이 평평하게 됐다. 세계가 평평해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아웃소싱’ 이상 완전히 새로운 단계의 ‘소싱’을 의미한다. 2000년을 전후로 정치·기술적 에너지들이 모여 완전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 웹으로 연결된 세계는 지리·거리·미래 심지어는 언어까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지식·노동·오락이 공유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리드먼의 표현에 따르면 “세계 IT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라는 말이 상투적으로 들릴 정도다. 기술개발, 표준화도 평평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TTA**